

# 거대한 비밀의 숲속으로

tvN 드라마 <비밀의 숲>에 대한 통찰

김혜라

## 1. 장르물의 새로운 기준점

한국의 장르 드라마는 <비밀의 숲>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기존의 장르 드라마, 특히 수사물 드라마는 제대로 된 장르물을 만들려 다 대중을 놓칠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 오리무중이 된 경우가 꽤 있었다. 최근 종영한 SBS <조작>과 tvN <크리미널마인드>는 <비밀의 숲>과 비교당하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밀의 숲>은 사전제작 드라마로 시청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만들지는 못했지만, 오히려篤심 있게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응답하라 1988>, <태양의 후예> 이후로 <비밀의 숲>이 또 한 번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사전제작이 흥행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라질 때가 된 듯하다.

〈비밀의 숲〉은 어떻게 한국 장르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걸까? 〈비밀의 숲〉은 종영하기도 전에 시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검찰과 경찰, 비리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널리고 널려서 주제만 봐도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밀의 숲〉만의 특별함은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단 하나의 사건만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그 하나의 사건은 파면 팔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수많은 연결 고리가 나타나며 지루할 틈이 없다. “설계된 진실, 동기를 가진 모두가 용의자다”라는 홍보 카피에 맞게 그 수많은 연결 고리는 시청자가 범인을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만든다.

게다가 주인공 황시목(조승우 분)이 뇌섬엽 절제술로 인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었고 러브 라인도 빠질 수 있었는데, 이 점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장르물로서 격을 높였다. 오히려 황시목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드라마 전개와 별개로 흐뭇하게 느껴져 황시목을 중심으로 보면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성장 드라마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치밀한 취재로 완성된 탄탄한 극본과 조잡하지 않고 깔끔한 연출의 조화로움, 살아 숨 쉬듯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캐릭터들도 성공 요인이다.

또한,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에 따르면 이야기 구조는 보편적으로 대립하는 쌍들로 꾸며져 있다. 이는 레비스트로스와 동일한 견해로, 원시 사회와 비슷한 기본 구조다. 그런데 〈비밀의 숲〉은 선과 악, 이런 추상적인 대립 구조가 아닌 인간적인 사람과 비인간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과 냉혈적인 사람으로 대립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지닌다. 악인으로 비쳤던 이창준(유재명 분) 역시 알고 보니 선도 악도 아닌

그저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통의 드라마가 한 건의 살인 사건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이나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어나가는 것엔 이유가 있다. 한 회를 놓치거나 중간에 보더라도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 <비밀의 숲>은 드라마 전체의 호흡이 길어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시청해야 한다. 장르물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다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최고 시청률이 6.6%밖에 나오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비밀의 숲>은 드라마보다 영화적 특성에 훨씬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영화로 제작됐으면 훨씬 흥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현실을 넘어서는 리얼리티 드라마

<비밀의 숲>이 다루는 단 하나의 사건, '검찰 스폰서 살인 사건'은 우리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소재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방산 비리와 미성년자 성매매, 검찰과 경찰 및 고위 측 비리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다뤘다. 심지어 마지막 회에서는 조승우가 국민에게 “우리 검찰, 더 이상 부정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싸우겠습니다. 기소권을 더 정확한 곳에 만 쓰겠습니다”라며 직접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범(이경영 분)이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라고 외쳤는데, 이 상황도 우리에게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지 않은가?

사건이 종결된 후 이윤범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오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했으며, 한여진(배두나 분)은 포상

특별 승진을 받고 황시목은 미국 연수가 취소되고 남해로 발령이 났다. 주인공들의 사건 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 행보마저도 무척 현실적이다. 이연재(윤세아 분)가 이창준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뒤 한조그룹 이사로 올라간 장면도 사실적이다. 그 외에 주인공들의 집과 검찰청, 검사 방은 실제 검사들이 보고 감탄했을 정도로 보이는 부분 외의 디테일함까지도 신경 썼다. 리얼리티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탄탄한 극본에 현실적인 연출까지 더해져 어떻게 보면 <비밀의 숲>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비밀의 숲>이 현실 그대로일까? 검찰, 경찰, 정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현실을 리얼하게 그려낸 <비밀의 숲>을 본 시청자들이 혹여나 모든 검찰, 경찰, 정부를 악의 무리라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원용진의 『텔레비전 비평론』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세계로 향해 열린 창’으로, 이는 텔레비전이 수용자에게 매일매일 세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정보를 확장하고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세계로 향해 열린 창으로 검찰, 경찰, 정부 등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창에 먼지가 끼어 있을 수 있다. 그 먼지를 닦는 역할은 제작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드라마는 사회를 담아내고, 결국 그 사회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며 미디어가 현실을 비추고 있다고 표현했다. 대표적인 미디어인 텔레비전, 그중에서 드라마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혹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각색해서 재연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거울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기를 바란다.

### 3. 평면적이지 않은 다면적인 캐릭터

〈비밀의 숲〉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되 드라마의 중점적인 진행이 황시목의 시선일 뿐, 조연 캐릭터들이 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극 중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캐릭터가 많지 않다. 캐릭터를 소중하게 느끼는 건 죽음으로도 알 수 있다. 자살한 캐릭터를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캐릭터는 처음 시작할 때 죽은 박무성(엄효섭 분)과 영은수(신혜선 분) 둘뿐이다. 수사물 드라마에서 단 두 명의 피해자밖에 없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 역시 드라마 전개가 오직 한 건의 사건으로만 진행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황시목은 사이코패스와 같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와 증인, 진실만을 쫓아가며 온전히 수사에만 집중하는 정의로운 인물이다. 기존 드라마에서 나오던 사이코패스와는 역할부터 다르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스스로를 살인을 저지르는 악역이 대부분이었는데, 황시목은 오히려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사를 택했다. 〈비밀의 숲〉 2회에서 황시목이 남편이 죽어 오열하는 아내를 취조하는 장면이 있다. “당신이 그 검사야? 내가 우리 오빠 죽였어. 우리 오빠 살려내!”라며 절규하는 아내에게 황시목은 “왜 안 말렸습니까? 대답하세요. 죽을 거 알았잖아. 남편이 시킨 거 맞죠?”라며 아내의 감정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실만을 쫓아가는 게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일까? 현실에서 황시목 같은 검사는 몇이나 될까? 드라마 속에서 정의로운 캐릭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과연 이런 캐릭터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존재할지, 그리고 더욱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요즘은 누구나 힐링을 원한다. 누군가에게 치유받길 원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지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론 감정이 없는 황시목을 보며 차라리 감정 없는 사람이 살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병든 시청자들에게 사이코패스가 부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원하기도 한다는 점이 서글픈 현실이다.

〈비밀의 숲〉에서 가장 애매한 캐릭터는 서동재(이준혁 분)였다. 악인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서동재는 알고 보니 그저 살기 위해 발악하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였다. 사람을 죽일 정도는 못 되지만 사람을 배려하며 살진 않는다. 이창준은 서동재에게 죽는 순간까지도 이 길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한 이유일 것이다. 야비하고 영악하지만, 하염없이 흔들리고 발버둥 치는 서동재가 우리의 현실과 가장 닮았기에 결코 미워할 수 없었다.

극 중 이연재가 황시목에게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알고 있어 소개해준다고 하자, 한여진은 저도 예쁜 아가씨들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연재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데?”라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이연진은 그 말에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에 맞장구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껏 다른 여자들을 적으로 대한 게 아닐까요?”라고 한다. 한여진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다. 여성 캐릭터로 다른 남성 캐릭터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움직인다. 한여진뿐만 아니라 서동재, 이창준 모두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다면적인 캐릭터로 드라마의 생동감을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이 대화는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프레임을 파괴했다.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이러한 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드라마 속에서 페미니즘적인 발언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보잘것없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여성화된 감정적인 사람으로 비취낸 것이 바로 대중매체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 여성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 4. <비밀의 숲>이 남기고 간 것들

이창준은 과연 괴물에 불과했을까? 접대가 아닌 한 번의 식사 자리, 그리고 시작된 유혹에 그는 단숨에 악인이 되었다. 이창준의 실수는 딱 한번 눈감고 넘어가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알려준다. 어쩌면 이창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황시목이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비밀의 숲속에서 이창준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뿐, 결국 그는 자신이 아닌 아직 그 숲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고했다. “동재야, 이 길로 오지 마.” 이는 서동재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부디 오지 말라고 전하는 진실된 목소리다.

<비밀의 숲>은 우리에게 희망도 남기고 갔다. 사건이 종결되고 비리를 가진 인물들이 벌을 받게 했지만, 곧바로 다시 풀려나거나 저지른

일에 비해 가벼운 대가를 치르며 권선징악을 명확하게 보여주진 못했다. 시청자에게 ‘사이다’가 부족했다는 평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결말에 더욱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에게 〈비밀의 숲〉이 건네준 공통적인 것은 바로 희망이다. 마지막 회에서 황시목은 국민에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런 괴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검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심금을 울리는 사죄를 했다. 이때 황시목의 말은 마치 드라마 속의 국민들이 아니라 마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건네주는 말로 느껴졌다.

이 드라마는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 황시목, 한 여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은 이들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낀다. 정의란 무엇인가? 검사와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의를 이룰 수 없을까? 일반인들이 검사와 경찰이 하는 일처럼 큰 정의를 위해 싸울 순 없겠지만, 설령 나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정의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 가야 한다. 황시목은 정의를 가지고 거대한 비밀의 숲속으로 들어갔고, ‘비밀의 숲’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우리 사회를 그대로 표방한 것이다.

〈비밀의 숲〉은 드라마를 통해 현실 속 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했으며, 단순히 재미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라마다. 또한 장르물의 변화도 가져왔지만 드라마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비밀의 숲 시즌 2〉가 나온다면 감정을 찾는 황시목과 그 밖의 캐릭터들, 그리고 나와 우리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실재하는 황시목들이 비밀의 숲에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또, 그 진실이 숲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기를.